



#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례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 고통 너머에 이미 빛나는

타볼 산에 오르신 주님,  
침묵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당신의 얼굴은 빛이 되어  
어둠 속에 숨겨진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눈부심에 떨었지만  
그 빛은 단지 순간의 광채가 아니라  
다가올 십자가 너머에서 이미 시작된 하느님의 아침이었습니다.

수난의 길은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건너가는 좁은 문임을,  
상처 입은 몸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변화된다는 약속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깊은 밤에도 말없이 타오르는 그 빛이 있어  
눈물의 골짜기 너머에 기다리는  
하느님의 얼굴을 미리 비추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압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며 십자가는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것을.

##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03/01/2026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61,028  
현재 기부 금액 - \$ 50,515  
현재 참가 인원 - 103명



##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로올라의 이냐시오(1)

## 기사의 검을 성모 마리아께 봉헌하다

"영혼의 영원한 복락을 위한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이 주는 중요성은 지난 3세기 동안 증명되었으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증거, 다시 말해서 짧은 시간에 고행의 길과 경건함의 실행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증거에서 증명되었습니다." - 교황 레오 13세 예수회의 창설자이며 그리스도교 영성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영신수련』의 저자, 로올라의 이냐시오(1491-1556). 그는 교회 안팎으로 종교적·영성적 혼란과 개혁의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던 시대에 가톨릭 교회의 쇠신과 부흥에 위대한 공헌을 남겼다. 특히 『영신수련』은 예수회 영성의 유산이자 기도의 지침서로서, 수많은 이들이 구세사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고 세상 안에서 사도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왔다. 예수회의 사도직은 바로 이 『영신수련』의 정신과 함께 "활동하는 가운데 관상하는"(Contemplativus in actione) 삶에서 비롯되었다. 이 영성은 오늘날 신앙과 삶의 통합을 추구하는 평신도 영성의 중요한 지표로도 평가받고 있다.

이냐시오는 1491년 스페인 바스크 지역 키푸스코아 지방의 로올라 성에서 태어났다. 부농이자 귀족 가문에서 성장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기사로서의 꿈을 키웠다. 13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궁정 재무를 맡았던 친척의 집에서 교육을 받으며 궁중 기사로서의 소양과 행정 능력을 익혔다. 그러나 젊은 시절의 그는 세속



적 명예와 향락을 좇으며 방탕한 삶을 살았다. 최신 유행의 복장과 헤어스타일을 즐기고, 격투와 연애담에 빠져 살았던 그는 한때 세속적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

그의 삶을 바꾼 사건은 1517년 군복무 중 입은 중상이었다. 포탄 파편으로 다리를 크게 다친 그는 긴 회복 기간 동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책을 읽다가 루돌프 폰 작센의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인전』을 접하게 되었다. 기사들의 영웅담에 익숙했던 그에게 이 신심 서적들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그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다. 그는 깨닫게 되었다. 세속적 공상은 일시적 흥분만을 줄 뿐,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반면 성인들의 삶을 따르는 길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깊은 평화를 준다는 것을. 그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신

성모 마리아의 환시를 체험하며 지난날의 삶을 깊이 뉘우쳤다.

마침내 그는 성인들처럼 살기로 결심한다. 채소만 먹으며 엄격한 고행을 하고, 맨발로 예루살렘을 순례하기로 마음먹었다. 1522년, 로올라 성을 떠난 그는 “몽세라”에서 총고해성사를 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기사의 갑옷과 무장을 거지에게 내주었다. 그리고 기사의 상징이던 장검과 단검을 성모 마리아께 봉헌하였다.

(다음 주에 계속)

**공지 사항**

**1 미사 안내**

성모 신심 미사  
● 일시 : 3/7(토) 오전 10:00

**2 십자가의 길 기도**

● 일시 : 매주 금요일 10:00 미사 후  
'재의 수요일' (2/18)부터 '주님 만찬 성목요일' (4/2) 미사 전까지 사순 시기입니다. 이 시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파스카 축제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미사 후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Rice Bowl**

사순시기 동안 Rice Bowl을 채워서 성당에 가져오시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4/26(주일)까지 기부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 사순 판공성사**

● 일시 : 모든 미사 30분 전,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9:00까지 판공 성사가 진행됩니다. 성사 후 고해소 내 바구니에 판공 성사표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5 특별 헌금(Special Collection)**

● 일시 : 2/28(토) - 3/1(주일)  
시애틀 대교구에서 운영하는 소식지인 North-west Catholic 운영을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6 울뜨레아 모임**

● 일시 : 3/7(토) 오전 11:00  
● 장소 : 110호실  
3월 울뜨레아 월례모임이 있습니다. 꾸르실리 스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7 밀크릭 구역 모임**

일시 : 3/1(주일) 오전 11:20  
장소 : 110호 교리실  
밀크릭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 시노드 두번째 모임**

● 일시 : 3/8(주일) 오후 1:00  
● 장소 : 성전  
모든 시노드 참가자분들은 각 소그룹의 두 번째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년회 2026 사순피정**

● 일시 : 3/20(금)-3/22(주일)  
● 장소 : Lake Retreat, 27850 Retreat-Kanaskat Road, Ravensdale, WA 98051  
● 대상 : 청년  
● 참가비 : 학생 \$60, 직장인 \$80  
● 신청 마감 : 3/1(주일)까지  
● 문의 : 청년회장 김스텔라 425-368-8814



**10 성당 50주년 기념 기금 안내**

50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 본당 설립 50주년 묵주 기도 50만 단 봉헌**

본당 설립 5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50만 단 봉헌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7/1/2025 - 8/31/2026  
● 대상 : 전신자

**입당송**

주님, 당신 얼굴을 찾으라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제1독서**..... 창세 12,1-4ㄱ  
<아브라함을 하느님 백성의 아버지로 부르시다.>

**화답송**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제2독서** ..... 2 티모 1,8ㄴ-10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환히 보여 주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 마태 17,1-9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영성체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사순 제1주일 (2/22)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41명	68명	302명	-	51명	462명

성가 안내	입당 성가 : 127	예물 준비 성가 : 216, 340	성체 성가 : 168, 496	파견 성가 : 281
-------	-------------	---------------------	------------------	-------------

**교우 비즈니스 광고**

<b>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b>	<b>CPA, Cho &amp; Assoc. LLC</b>	<b>박영진 부동산</b>	<b>엠마 스킨 케어</b>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역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b>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b>	<b>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b>	<b>Pearlshining Photo</b>	<b>퀀텟 용자/부동산</b>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욱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갯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b>KCR MEDIA GROUP</b>	<b>24시간 한국방송 &amp;TV</b>	<b>IRA/401(K)</b>	<b>김현숙 부동산</b>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b>황바로 바오로 CPA</b>	<b>리나 웰니스 클리닉</b>	<b>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b>	<b>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b>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b>동서 한의원</b>	<b>New York Life</b>	<b>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b>	<b>블루밍 치과</b>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b>아틀라스 척추 의료원</b> 14608 Hwy 99 #309 Lynnwood	<b>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b>	<b>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b>	<b>이재호 (베드로 치과)</b>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b>정가네 반찬</b>	<b>황명심 데레사, CPA, CFP</b>	<b>굿닥터 카이로프랙틱</b>	<b>그린 리본 프로젝트</b>
반찬, 케더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b>희망미디어(Hope Media)</b>	<b>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b>	<b>핸디맨</b>	<b>Bridge Tax Services</b>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촬영&편집 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개인 및 자영업자 세무 회계 전문 CPA 김효진(릿다) 425-243-7423 www.bridge-taxservices.com
<b>웅진 코웨이 USA</b>	<b>뉴 해남 식당</b>	<b>Banji (Korean Speed Dating)</b>	<b>시애틀 풀락 (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b>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목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3/26/26)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4/18/26)	

# 교황청 신앙교리부

## 구원 사업에서 마리아의 협력과 관련된 마리아의 일부 호칭에 관한 교리 공지

### 충실한 백성의 어머니 (Mater Populi Fidelis)

〈지난주에 이어서〉

**33.** 이 모든 것은 마리아 스스로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유일한 주 구세주의 영광을 통하여 고유하고도 선취적 방식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입으신 덕분이다. 종합하자면, 마리아께서는 하느님 은총의 효력에 대한 찬미의 노래이시고, 그러하기에 그분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증언도 곧바로 모든 선의 원천이신 성삼위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다. 마리아의 비할 데 없는 위대함은 그분께서 받으신 선물과 성령께서 충만히 내리시도록 당신 자신을 기꺼이 맡겨 드리는 신뢰의 마음가짐에 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역할과 병행하는 능동적 역할을 마리아께 부여하려 애쓴다면 그분의 비할 데 없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잃고 마는 것이다. ‘참여적 중개’라는 표현은 마리아의 역할이 지닌 정확하고 귀중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으나, 만일 올바르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를 흐려지게 하고 심지어 그 반대의 의미가 되기도 쉽다. 그리스도의 중개는 어떤 측면에서 볼 때 ‘포용적’이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배타적이고 통교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 믿는 이들의 어머니

**34.** 마리아의 경우, 이러한 중개는 모성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십자가 아래서도 분명 그렇게 하셨다. 이 사실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다. “그분께서는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이는 그분께서 십자가 사건 때에 바

로 그곳에서 예수님께 받은 호칭입니다(요한 19,26-27 참조). [이들은] 당신의 자녀들이고 당신께서는 어머니십니다. …… 그분께서는 주님의 어머니가 되는 선물을 받으셨고 어머니로서 우리와 함께 걸으며 우리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의무를 받으셨습니다.”

**35.** ‘어머니’라는 호칭의 근거는 성경과 교부들에 있다. 이 호칭은 교도권에서도 제시되고, 그 내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과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Redemptoris Mater)에서 용어 ‘영적 모성’을 사용하기까지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마리아의 영적 모성은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육체적 모성에서 비롯된다. 자유 의지와 믿음으로 그 사명을 수락하시어 육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하심으로써 마리아께서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지체인 모든 그리스도인 또한 낳아 주셨다. 다시 말해, 머리와 지체들로 이루어진 온전한 그리스도(totus Christus)를 낳아 주신 것이다.

**36.** 동정 마리아께서 어머니로서, 강생에서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당신 아드님의 온 생애에 참여하신 사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에 대한 그분의 협력에 유일하고도 특별한 특징을 부여하며, 이는 교회가 “신비체의 모든 지체를 위한 마리아의 영적인 모성을 생각할 때, 신뢰 안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변호자이시며 협조자이신 마리아의 전구를 체험할 때” 특히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모성적 측면은 동정녀께서 그리스도와 이루는 관계 그리고 구원 활동의 모든 순간에 대한 그

분 협력의 특징이다. 마리아께서는 어머니로서 사명을 통하여 구세주와 그리고 구원받은 이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다. 마리아께서는 그 구원받은 이들 가운데 첫째 자리에 계신다. “마리아께서는 교회의 전형(모범)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 남의 전형(모범)이시다.” 그분께서는 참으로 “교회 자체의 요약이시고” 상징이시다. 이러한 모성은 전적인 자기 증여와 신비에 봉사하라는 부르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은총으로 말미암은 모성과 온 교회 안에서 오늘날 마리아께서 계시는 자리에 관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마리아의 모성 안에 요약되어 있다.

**37.** 마리아의 영적 모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명확한 특징들을 지닌다.

**가)** 마리아의 영적 모성은 그분께서 하느님의 어머니시며 그분의 모성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로 또 온 인류에게로 확장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리아의 협력은 특별하며 모든 ‘다른 피조물’의 협력과는 구별된다. 마리아의 전구는 (그리스도의 중개와 같은) 사제적 중개의 성격을 지니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대신 모성의 질서와 유비 안에 자리한다. 마리아의 전구를 당신 활동에 결합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로 주고자 하신(요한 19,27 참조) 바로 그 어머니의 자애와 친밀함 가득한 모성적 모습을 지니고 선사된다.



나) 마리아의 모성적 협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참여적이다. 다시 말해, 마리아의 모성적 협력은 “그리스도의 중개인 그 유일한 원천에 참여하는” 것이다. 마리아께서는 완전히 인격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개에 참여하신다. 마리아의 어머니 역할은 “그리스도의 이 유일한 중개를 절대로 흐리게 하거나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 준다. 사실 복되신 동정녀께서 사람들에게 미치시는 모든 구원의 영향은” “그리스도의 넘치는 공로에서” 샘솟는 것이므로, “그 영향은 그리스도의 중개에 의지하고 거기에 온전히 달려 있고 거기에서 모든 힘을 길어 올린다.” 당신 모성 안에서, 마리아께서는 인간과 그리스도 사이에 걸림돌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의 모성적 임무는 그리스도의 임무와 떼려야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향한다. 이렇게 이해된 마리아의 모성은 그리스도께만 마땅히 드러야 할 유일한 흠숭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흠숭을 더욱 복돋우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 자비가 충분하지 못한 데에 대한 필수적 대안이 마리아라는 듯이 그분을 주님의 정의(iustitia) 앞에 위치한 일종의 ‘피뢰침’으로 제시하는 호칭이나 표현은 피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마리아께 드러야 할 신심의 방식을 재확인해 주었다. 곧 그 신심은 “어머니께서 존경을 받으실 때에 그 아드님께서 …… 바르게 이해되시고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하도록”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이끄는 신심”이다. 궁극적으로, 마리아의 모성은 성부의 선택, 그리스도의 행위, 성령의 활동에 종속적이다.

다) 교회는 마리아의 영적 모성에 대한 기준점 일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모성은 언제나 바로 교회의 성사적 차원 안에서 드러난다. 마리아께서는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행동하신다. 마리아의 모성은 교회적 친교 밖이 아니라 교회의 친교 안에서 교회를 이끌

고 동반하는 가운데 행사된다. 교회는 자신의 모성을 마리아에게서 배운다. 복음을 전하고 회심시키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환대에서,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라는 성사적 삶의 선물에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라나도록 돕는 모성적 교육과 양성에서 그 모성을 배운다. 그러한 까닭에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교회의 풍요로움은 마리아의 풍요로움이며, 이는 교회의 지체들이 성모님의 삶을 ‘축소판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을 때, 곧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실현된다.”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는 우리 가운데 태어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며 결코 그분의 자리를 대신하려 들지 않으신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열린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풍성한 은총 덕분에, 교회, 동정 마리아, 그리고 모든 믿는 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직접 이 생수의 샘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작은 안에서 작음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 전구

38.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모성과 은총의 총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유일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계시다. 그 암시가 천사의 인사(루카 1,28 참조)에 들어 있다. 여기서 사용한 단어인 ‘은총이 가득한 이여’(kecharitome, 케카리토메네)는 성경의 다른 어디에도 없다. 성령의 권능을 당신의 태에 받아들여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그분께서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어머니가 되신다. 모성과 은총의 이 특별한 결합 덕분에 우리를 위한 마리아의 기도는 그 어떤 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가치와 효력을 지닌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중개자’(Mediatrix)라는 호칭을 이러한 모성적 전구의 역할과 연결 지으면서, 마리아께서는 스스로 “‘가운데에’ 자리하신다는 사실에 주목하셨다. 곧, 그분께서는 방관자로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위치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하신다. 마리아께서는 자신이 중개자로서 당신 아드님께 인간들의 어려움을 알려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다.]”

39. 가톨릭 신앙은 성경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늘 나라에 있는 이들이 사랑의 행위를 이어가며 우리를 위하여 전구하고 우리를 동반할 수 있음을 읽는다. 예컨대, 우리는 천사들이 “하느님을 시종드는 영으로서, 구원을 상속받게 될 이들에게 봉사하도록 파견되는 이들”(히브 1,14)임을 본다. 성경은 천사들이 수행하는 사명도 말한다(토빗 5,4; 12,12; 사도 12,7-11; 묵시 8,3-5 참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마태 4,11 참조)와 수난을 받으실 때(루카 22,43 참조)에 그분을 도와드리는 천사들이 있다.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한다. “그분께서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시편 91[90],11).

40.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하늘과 땅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이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이들이 우리를 위하여 전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즈카르야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하느님의 한 천사를 묘사한다. “만군의 주님, 당신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가없이 여기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내버려두시렵니까?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일흔 해나 되었습니까?”(즈카 1,12). 마찬가지로 요한 묵시록은 ‘살해된 이들’, 곧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에 관하여 말한다. 이들은 불의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일을 땅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간청함으로써 하느님께 중개하고 있다. “나는 하느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한 증언 때문에 살해된 이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님, 저희가 흘린 피에 대하여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고 복수하시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묵시 6,9-10) 그리스께 유대인 전통 안에도 이미, 세상을 떠난 의인들이 백성을 대신하여 전구한다는 확신이 있었다(2마카 15,12-14 참조).

〈다음주에 계속〉